

2017年度

# 新年辞



忠州市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오늘!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실천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새 해에 시정의 지향점은 “시민”으로  
핵심 키워드를 ‘참여와 소통 그리고 변화’로 정해  
시정을 결집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문화와 관광,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품격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이  
 불과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대회운영 준비와 홍보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온 만큼,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를 치루는데 그치지 않고  
충주의 역사문화와 산업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매력과 성장잠재력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각인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통합을 이뤄낸 충주시체육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직장운동부 지원을 통해

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북부생활체육공원 등  
계획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체육복지를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중원문화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충주읍성 복원사업과 탄금대 정비사업은  
역사학계의 자문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관아골 동화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륵문화제를 통해서  
시설인프라 못지 않게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충주중원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이 보다 활성화되고  
더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것입니다.

관광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가족단위 체험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탄금호 물놀이장, 탄금호 유람선 운영,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등을 가시화하는 한편,

「중원문화관광레포츠 특구 확대계획」을  
수립해, 탄금호를 중심으로  
충주의 강을 활용한 종합적 관광개발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를 대비해  
구)수안보로얄호텔, 구)능암초 등  
민간에 제시할 수 있는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소태~양성간 세월교, 직동~재오개간 도로 등  
수안보·양성 온천과 충주호 일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관광시설 민자유치 발판을 다져가겠습니다.